

거듭 태어난 상지대학교

김 찬 국
상지대 총장



1. 연혁과 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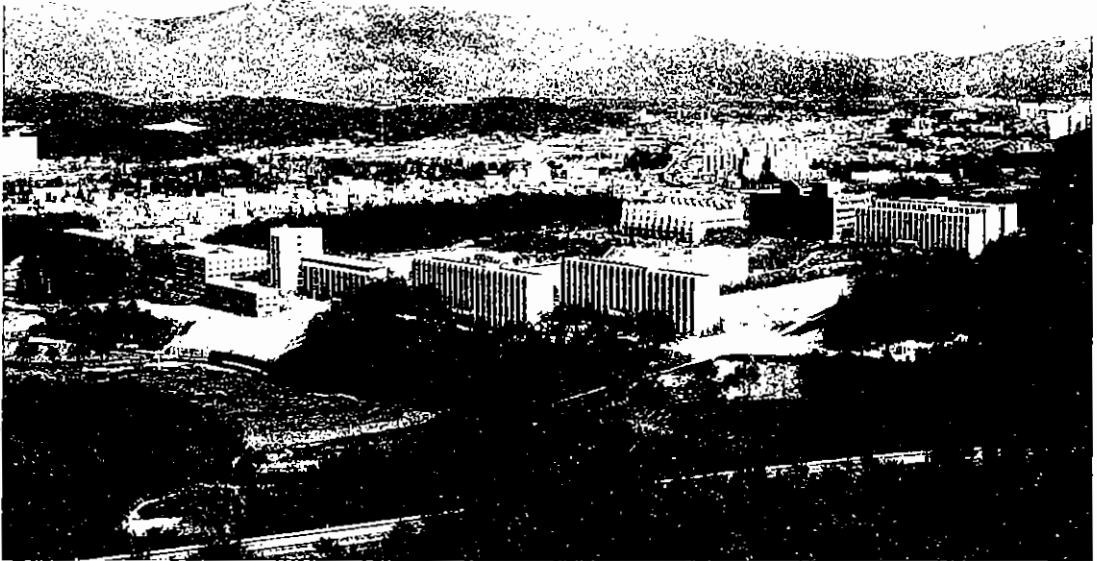
1) 개교 20년의 발자취

본교는 홍익인간과 교육입국의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아 민족의 예지를 닦고 역량을 길러 국가의 장래를 설계 창조할 지도자적 영재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1974년 김문기 이사장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설립 당시는 국가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이 가시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원도 영서지역의 중심지이면서도 고등교육기관의 불모지였던 원주지역에의 건학은 지역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발전적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간 5개 학과와 야간 3개 학과 등 8개 학

과 270명의 신입생을 맞으며 출발한 상지대학교가 처음 터잡은 원주시 봉산동 교지는 주변 환경이 산만하고 협소하였기 때문에 연구하고 교육하는 배움의 터로서는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모색중 치악산을 우러러 보며 젊은 동량들이 용지를 펼 수 있는 우산동의 이룩한 산자락에 현재의 강의1동이 신축되면서 정주하게 된다.

본교는 1978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후 83년 현재의 본관이 신축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지속적인 증원 증과와 함께 일반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이 설치 인가되고 5개의 강의동·체육관·도서관 등 교육시설들이 속속 신축되면서 비약적인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 드디어 이와 같은 80년대 외형적 성장의 결과 1990년 종합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초대 총장으로 양석호 박사가 취임한다.



▲ 삼지대는 강원도 영서남부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민주적 자율적인 운영 풍토 정착과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등으로 거듭 태어난 대학의 모습을 손색없이 보여준다.

2) 대학발전의 전기

그러나 한편 급격한 외형적 성장은 불가피하게 종합대학에 걸맞은 내실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분출하는 대학구성원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의사소통 없는 운영풍토 및 역할분담 없는 대학행정의 미분화 등 외형과 내실의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 종합대학 전환을 계기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에 따른 내적 갈등과 외부화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급기야 대학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의 첫 시험대가 되었고 대학운영체제 역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정부는 1993년 6월 4일 종래의

재단이사회에 대한 승인 취소와 함께 김상준 전 문교부차관을 이사장으로 하는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전체교수회의에서 선출한 총장후보를 새로운 이사회가 선임함으로써 1993년 8월 31일 본인이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즉시 본인은 본교 고뇌의 역사적 흔적에 당혹하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려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변화에 대한 욕구는 본인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오히려 혹독한 추위와 세찬 바람을 용케도 견뎌 낸 후 갱생한 대학이기에 대학의 체질개선과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통하여 건학이념을 구체화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

가 되었다. 따라서 본인이 취임한 지 1년 남짓한 현재 상지대학교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풍토의 선도적 정착은 물론 제도 및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혁을 가져옴으로써 거듭 태어난 대학의 모습을 손색없이 보여주고 있다.

2. 대학현황과 교육환경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1993년 6월 이후 교육부가 선임한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4년 7월 이후 이사장인 이춘근 박사를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 산하에는 본 대학 이외에 병설전문대학과 강원도 평창군 소재 대관령 종합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본교는 교무위원회가 대학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농과대학, 예술체육대학 및 한의과대학 등 6개 단과대학 37개 학과에 6천여 명의 학부 재학생이 재적하고 있고, 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교육대학원 등 3개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에 3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수학하고 있다.

대학 부속기관으로는 부속한방병원·중앙도서관·실습목장·기숙사·학보사 및 방송국이 있으며, 사회과학연구소·자연과학연구소·지역개발연구소·환경과학연구소·산업경영연구소·한방의학연구소·예술문화연구소·농업자원개발연구소·체육과학연구소 등 9개의 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상 6층에 최신설비를 갖춘 부속한방병원은 한방 특유의 의료서비스 전달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획기적인 투자로 선진적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대학개혁 노력

필자는 취임 직후 전면적인 보직개편을 단행하고 대학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과거 잘못된 문제들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자 다음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대학이 공익적 명분에 충실하고 교육윤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시대의 비도덕적 요소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에 충실하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이 진정 자유와 정의의 전당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학인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상 몇 가지 기본적인 개혁방향에서 필자는 취임 후 약 1년간 자주적인 대학운영 풍토를 정착시키고 잘못된 관행은 교정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대학운영 풍토의 정착

첫째, 이사회의 의결 및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였다.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직과 작용을 규정하는 정관에

서, 특히 총장에게 인사권을 어느 정도 위임하느냐는 각 대학의 선례에서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가능하는 척도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 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권과 직원의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과 학·처장 등 보직권의 일부를 총장에게 위임하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대학자율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대학운영결정기능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현재 각 단과대학장 및 처·실장과 대학원장, 도서관장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대학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무위원회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하여 각종 규정(안)의 심의는 물론 중요한 의안을 의결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와 토의를 거침으로써 자율적인 대학운영 관행의 정착과 민주적인 사전달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다.

셋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실질화하고 총장의 권한행사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특히 각각 별도로 구성된 교원 및 직원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넷째,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예산결산자문위원회 및 기성회 역시 그 구성을 실질화시켜 예산결정기능을 강화시켰고, 확정된 예산은 대학구성원 누구에게도 공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결산 결과는 학보에 게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섯째, 내부규정을 정비하였다. 자율적인 대학운영 풍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 실과 피리되어 있거나 상호 배치되는 90여 종의 각종 규정, 준칙, 내규 등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여 정비하는 한편 규정집을 발간 배포하여 대학행정의 규범이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대학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통제체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재정지출행위·예산통제·구매 및 입찰·지출행위 등 기능의 배분을 통한 통제기능의 강화를 꾀하였고, 사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총장→부총장→학처실장→과장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시켰다.

2) 연구 및 교육서비스 기능의 강화

첫째,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연구 및 지원인력을 대폭 충원 재배치하였다. 대학행정의 종합성과 기능화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정관상의 조직단위를 재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40여 명의 직원을 엄정한 공개채용과정을 통하여 충원하고 재배치하여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객관적 합리적인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30여 명의 우수한 학자를 초빙하고 이를 『교수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금년에는 20여 명의 교수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둘째, 연구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구비를 대폭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매년 전체 교수의 30%에 이르는 교수에게 일반연구비를 지급하는 한편,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할 경우는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각 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조성비를 지급하고 있고, 특히 지역관련 연구과제와 대학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특별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셋째, 행정전산화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학사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교수 및 학생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대학행정 전반에 관한 전산망 구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을 통한 개혁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산화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자계산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넷째, 도서관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중앙도서관에 정규 사서직의 신규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지원체제를 강화하였고, 도서관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전 개가식 열람제로의 개편과 함께 정보검색 및 최신 학술정보서비스망의 선진적 도입으로 도서관 운영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도서관입비의 대폭 증액으로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장서와 400여 종의 외국학술잡지를 구비하였다.

3) 교육시설의 획기적 확충과 환경개선

첫째, 교지를 크게 확장하였다. 중·장기적인 대학발전구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접한 6천여 평의 토지를 구입하였고, 추가로 3천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완벽한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청정도시 원주의 치악산을 우러러 보는 아늑한 곳에 자리잡은 현재의 캠퍼스는 소음과 공해가 없는 전원적인 분위기에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면서 낭만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둘째,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전국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독립된 학군단 건물을 준공한 데 이어 현재 착공단계에 있는 연면적 3,500평에 이르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현대식 종합강의동이 완공되면 기존 5개 강의동과 함께 여유있는 시설공간이 확보될 것이

다. 연이어 명년에는 한의학관 및 공예학관의 증축을 통하여 실험공간의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셋째, 학습환경의 개선을 꾀하였다. 캠퍼스 전역에 걸친 아스콘 포장과 200여 대의 승용차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 및 정문 확장을 통하여 캠퍼스 분위기를 변모시켰다. 또한 노후한 강의1동 건물을 전면 개수한 데 이어 기타 강의동 및 체육관의 대대적 개보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넷째, 기타 편의시설의 정비와 후생복지정책의 전환을 꾀하였다. 학생식당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임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식당 서비스의 질과 분위기를 일신시켜 다수의 타대학 학생대표들의 시찰대상이 되고 있다. 외지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는 여학생 기숙사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시에 생활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히 수도권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장학금제도의 경우, 무상 성적장학에서 유상 근로장학으로의 기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근로정신과 참여의식을 높여 주고 있다.

4. 대학 발전방향

이상과 같은 대학운영 풍토의 근본적인 개혁과 서비스기능의 강화 및 기본적 환경의 개선 등 본인이 취임한 후 약 1년여 동안의 조치들은 대학다운 대학이 되기 위한 본교의 역사성에 바탕을 둔 기초작업들이다. 즉, 잘못된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그 기초 위에서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거듭 태어난 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청사진은 궁극적으로 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넘쳐 흐르는 가치지향적 사고에서 설계하고자 한다. 비교적 일천한 대학의 역사 속에서 후심한 흥역을 겪은 대학이기에 슬한 모순을 잉태하고도 외적 내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다른 대학교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은 크다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대학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운영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에서 전개될 것이다. 첫째로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과정의 민주성을 존중하여 구성원의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보장하고, 둘째로 개방형 대학행정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학사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며, 셋째로 내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의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행태를 관례화하고자 한다.

갱생한 대학이 지향해야 할 이상의 좌표는

곧 수립하게 될 대학발전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체화 될 것이다. 첫째, 강원도 영서남부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종합캠퍼스플랜에 의하여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꾀할 것이다. 둘째, 야간학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산업체 근무자에게 주경야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 대학시설에 대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셋째, 특성있는 대학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강원도 유일의 한의학과는 특차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동시에 부속한방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살려 농과대학의 농·축산 관련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수익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